

ESG가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연구 : 빛가람혁신도시를 사례로

A Study on the Effect of ESG on Place Attachment and Resident Efficacy
: Focusing on Bitgaram Innovation City

국인성*·이세규**
In Seong Guk·Se Kyu Lee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III. 분석모형
- IV. 분석결과
-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빛가람혁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ESG도시행정이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신도시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ESG 도시행정, 장소애착, 그리고 주민효능감의 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설문설계, 연구 가설,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조사된 통계자료를 통해 구조방정식모형(SEM) 검증방법으로 연구가설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ESG는 장소애착에 모든 경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때 ESG요소 중 지배구조(G)는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반면에, 사회(S)가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장소애착은 주민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은 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이다. 빛가람혁신도시는 ESG 정책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운용해야 한다. 또한, ESG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는 지속가능한 도

* 제1저자,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석사

** 교신저자,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논문 접수일: 2024. 7. 29. 심사기간: 2024. 7. 29. ~ 2024. 9. 11. 게재확정일: 2024. 9. 11.

시발전을 위해 ESG 정책과 함께 지역주민의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주제어: ESG,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장소애착, 주민효능감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policies for new cities by examining the impact of ESG urban administration on location attachment and resident efficacy for residents of Bitgaram Innovation City. To this end, survey design, research hypothesis, and structural model were established in this study through the theory of ESG urban administration, location attachment, and resident efficacy, and research hypothesis was confirmed b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verification method through the surveyed statistical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SG has a positive effect on place attachment in all channels. At this time, among the ESG factors, governance structure(G) had a great influence on place attachment. On the other hand, it was proved that society(S) had the lowest influence on place attachment. Place attach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residents' efficacy.

The following are the policy implications. The Bitgaram Innovation City should establish and operate long-term plans and mid-term strategies to increase local residents' attachment to places and residents' sense of efficacy by utilizing ESG policies. In addition, professional manpower is required to implement and evaluate ESG policies. In addition, the Light Garam Innovation City needs policies to support local residents' attachment to places and residents' sense of efficacy along with ESG policies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Keywords: ESG,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Place Attachment, Resident Efficacy

I. 서론

급격한 기후변화는 세계적으로 국가, 도시, 기업, 개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이다. 기후 위기는 발생 범위가 범국가적이며 원인이 다양하기에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와 의사결정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를 중심으로 ESG 경영에 주목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도시 모두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전 세계적으로 193개 국가가 2030년까지 환경, 사회,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공동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ESG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 사회안정,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ESG는 이 같은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며 기업뿐만 아니라 도시정부의 ESG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ESG 경영이 세계적인 추세인 가운데, 이는 지역주민의 인식이 우선 전환되어야 도시의 성장과 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1년 K-ESG 지침을 만들어 기업경영과 지자체의 ESG 평가를 시작하였으나, 도시정부에서 ESG를 효과적으로 정착시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애정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인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된다. 성공적인 ESG는 단순한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의사결정 구조가 함께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ESG 도시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과 집단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규명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정부의 ESG가 효과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정책적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빛가람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4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설문을 설계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로 구축된 통계자료는 확인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잠재요인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활용하여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가설과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와 AMOS를 활용하였다.

II.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ESG

1) ESG 개념

ESG는 기업경영을 평가하는 재무적 영역과 함께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비재무적 영역을 포함하여 기업경영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이다. ESG가 등장하기 이전에 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책임 등의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며 ESG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덕목 중 하나이다(이도희 외, 2023).

ESG 개념은 2004년 UN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2006년 UN의 사회책임투자원칙(PRI)과 함께 대중적으로 확대되었다. ESG 경영은 재무적인 기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성과를 평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업경영을 위한 ESG 개념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중 환경 이슈는 환경경영으로, 사회는 사회적 책임으로, 거버넌스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이다(임채선, 2022; 박정호, 202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ESG 관련 법률은 2007년 지속가능발전법과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다.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법이 마련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산업자원부는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ESG의 개념을 기업경영에 적용하게 되었다.

2) ESG 도시정책 관련 선행연구

ESG 행복경제연구소는 202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ESG를 평가하기 위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분야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환경부문의 평가지표는 생활에너지, 폐수 배출량, 폐수발생업소수, 지역녹지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사회부문 평가지표는 지역안전등급, 사회복지시설수, 화재발생건수 등이 개발되었다. 거버넌스 평가지표는 공약완료율, 공약예산확보율, 재정자립도,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 의원당 의안 처리수, 메니페스트 평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광명시(2022)의 “2022 상반기 이행계획 추진실적 및 ESG 지표 선정·운영 보고서”는 환경의 평가지표를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전력자립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친환경자동차 보급률, 도시공원조성면적, 1인당 녹지면적 비율, 등이며, 사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달성률, 광명형 생애

복지 수혜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마을학습공간 및 학습공동체 수, 지역안전등급지수 등이 있다. 지배구조는 광명시 청렴도, 주민세 마을사업 예산, 주민참여 예산반영 건수 등이다.

임채선(2022)은 ESG 행정의 정책만족도를 분석하였다. 환경은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생활폐기물 배출량,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상하수도 보급률, 물관리 조례제정, 빗물 재활용시설, 전력수요량,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전력소비량, 신재생에너지, 미니태양광 보급, 탄소배출 감축률, 온실가스 배출량, 전기자동차 운영 등이다. 사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장애인고용률,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재난재해관리비, 화재 발생건수, 공공CCTV 설치현황, 범죄 발생건수 등이 있다. 그리고 지배구조는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 사업 항목 및 규모, 민원제기수,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센터, 청렴도, 정보공개 횟수, 주민감사청구 등이 있다.

채원호(2022)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ESG 경영의 우선순위를 연구한 바 있다. 환경은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배출, 상하수도 사용, 폐수 배출 등이며, 사회는 균등기회, 사회통합, 상생 협력, 지역발전 등이다. 끝으로 지배구조는 거버넌스 투명성, 윤리경영, 리더십과 행정혁신, 참여 확대 등의 평가지표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기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ESG의 관찰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환경(E)는 폐기물(생활폐기물),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대기오염(공원·녹지녹지율, 친환경자동차)이며, 사회는 균등기회(저소득층지원 제도마련), 공공보건복지(공공 안전시설 확충), 사회안전(범죄발생감소, 재난 및 재해 대응노력), 지배구조는 제도적 구조(주민자치위원회 제도), 주민참여(자원봉사센터 운영), 투명성(민원 처리, 정보공개) 등이다(<표 1 참조>).

〈표 1〉 ESG 관찰변수의 선행연구

구분	항목	세부항목	비고
ESG 행복 경제 연구소 (2021)	환경	오염배출, 환경정책추진, 생활에너지 절약, 환경비 지출비중, 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률, 폐수발생 업소 수, 환경중요성 인식도, 녹색제품 구입실적, 폐수 배출량,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소음 및 진동 시설수, 1인당 녹지면적, 지역녹지 만족도	폐기물, 생활에너지, 녹지면적, 지역녹지만족도
	사회	사회복지시설수, 교원1인당 학생수, 사회정책추진 공약, 유아천명당 보육시설수, 문화기반시설수, 의료기관 의사수, 지역안전등급, 의료기관 병상수, 출산건당 지원금, 화재발생건수, 자동차천대대당교통사고 발생수, 지역출산률, 건강관련 삶의질, 지역사회망울	보육시설, 지역안전등급, 사회편의시설
	지배구조	재정자립도, 공약 완료율,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공약예산확보율, 관리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주민참여예산 지출비율, 의회비용 절감율, 최근혁신평가 수상실적, 통합유동부채비율, 업무추진비 절감율, 의원당 의안 처리수, 사회복지비중, 메니페스토 평가결과	주민참여예산, 투명성

구분	항목	세부항목	비고
광명시 (2022)	환경	식생활 교육 사업예산 및 참가자 수, 우수율,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전력자립도,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업사이클 교육 참여자수, 친환경자동차 보급률, 기후변화 교육 이수자 수, 온실가스 배출량, 도시공원조성면적, 1인당 녹지면적 비율, 하천 수질등급 유지율, 도시 소생태계 조성수	신재생에너지, 도시공원, 녹지면적, 친환경자동차
	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달성률, 광명형 생애복지 수혜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마을학습공간 및 학습 공동체 수, 학습공동체 성장지원 프로그램 수, 여성 안전환경조성 개선율, 공공기관 육아휴직 신청 및 남성 직원 육아 휴직 이용률, 방과 후 초등돌봄센터 수, 사회적경제기업 수 및 역량강화 교육 횟수,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증가율, 스타트업 및 미래산업 창업 발굴 건수, 광명형 교통복지율, 지역안전등급지수, 인권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예산액 및 횟수	복지사각지대, 광명형 생애복지, 지역안전등급, 안전환경, 복지
	지배 구조	광명시 청령도, 주민세 마을사업 예산 및 지원 건수, 주민참여 예산반영 건수 및 예산액	청령도, 주민참여
임채선 (2022)	환경	미세먼지, 환경영양인중, 기후변화 대응조례제정, 공원녹지비율, 지속가능발전목표 계획수립,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생활폐기물 배출량,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빗물 재활용시설, 상하수도 보급률, 폐수 배출시설 단속 및 행정조치, 전락수요량, 물사용량 감소율,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물관리 조례제정, 전력소비량,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대응 조례제정, 미니태양광 보급,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배출 감축률, 온실가스 감축률, 전기자동차 운영 비율	생활폐기물, 물관리,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사회	인구증가율, 고령 인구비율(노령화지수), 출산율, 남녀성비, 결혼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장애인고용률,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청년고용률, 근로시간 증감률, 문화기반시설수, 체육시설수, 평생교육 기관 수,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공연 프로그램 가동률, 의료기관 병상수, 보건, 보건지수, 보건진료소, 음주율, 식중독 발생자수, 정기에방 접종률, 재난재해관리비, 안전교육 수료자, 화재 발생건수, 공공CCTV 설치현황, 범죄 발생건수	국민기초생활보장, 범죄발생, 공공CCTV, 재난재해관리
	지배 구조	환경 및 사회 분야 거버넌스, 단체장 공약 이행률, 환경분야 국제 기준 달성비율,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 사업 항목 및 규모, 민원제기수, 도시재생사업 참여단체수 및 인원수, 주민투표율, 주민소환, 주민소송, 감사청구, 주민총회, 주민자치위원회 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자원봉사센터 참여자수, 비영리단체 수, 비영리단체 종사자수, 청령도, 공무원비위징계 회수, 주민감사청구 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횟수	제도적 구조, 주민참여, 투명성
채원호 (2022)	환경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온실가스), 쓰레기, 폐기물, 상하수도, 폐수	온실가스, 폐기물
	사회	인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상생 협력, 지역발전, 고용, 양성평등, 문화다양성	사회통합, 다양성, 기회 균등
	지배 구조	거버넌스 투명성, 윤리경영, 리더십과 행정혁신, 참여 확대, 공공경쟁	투명성, 행정혁신, 참여확대

2.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

1) 장소애착

장소는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특별하게 인식하는 공간이다(Canter, 1997).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은 지역의 특정한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사회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정서와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상태이다(Altman & Low, 1992). 다시 말해, 사람들은 도시의 특정한 장소에 대해 애정을 느끼며 친밀함과 소속감을 함께 느끼며 장소에 대해 안정과 평온을 나누는 것이다(최열·임하경, 2005).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소애착은 정체성, 의존성, 착근성으로 설명된다. 장소의 정체성은 사회구성원이 특정 장소에 대해 선호하며 가치를 부여하여 구성원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되는 상징적 감정이다(Giuliani & Feldman, 1993; Pronshansky·Fabian·Kaminoff, 1983).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은 사회구성원이 목적지향에 따라 형성된 기능적 애착이다. 다시 말해, 사회구성원이 특정 장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이용하면서 장소의존성이 형성되며 추후 장소정체성으로 발달한다(McCool & Martin, 1994; Stokols·Shumaker, 1981). 장소착근성(place rootedness)은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형성되면서 형성되는 뿌리의식으로 고향의 애착과 문화적 동질감 등을 의미한다(Gustafson, 2001; Tuan, 1974). 장소착근성은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시키지만 타인들에게는 배타성이 강하게 작용하기도 한다(최열·임하경, 2005). 이 연구에서는 주민의 ESG 인지가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애착성, 의존성, 착근성을 중심으로 관찰변수를 설정한다.

2) 주민효능감

효능감(efficacy)의 정의는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한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이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 혹은 믿음'을 의미하며, 집단, 조직, 국가의 차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이세규, 2010; Gist, 1987; Bandura, 1986). 조직이 효율적으로 공동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의 신념이다(Riggs & Knight, 1994). 효능감은 반복적인 행위나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안다는 의미보다는 개인 또는 집단이 주어진 환경을 해석하고 이에 대해 다양한 목적을 위해 대처하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련의 인지적, 사회적, 행위적 기술에 대한 생성적 능력이라할 수 있다(최장호, 2009).

주민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이론에 근거하여 특수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 효능감을 합하여 주민이 특정업무에 대한 공동으로 완수하는 집단차원의 개념이다(Bandura, 1986).

주민효능감은 각 주민의 역량을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신념이다(Gibson et al., 1996). 주민효능감은 개인의 자기효능감보다 공동체의 성취감을 측정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의 총합보다 더 우수하게 측정된다(박원우·백연정, 2006). 주민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관찰 변수는 성취경험, 감정인식, 대리경험, 타인의견 경청 등이 있으며(Bandura, 1986), 정윤길·이규만(2007)은 임무수행을 위한 노력, 어려움의 극복, 맡은 소임의 성취, 문제발생 대응의 관찰변수로 설정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어진 일에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 어떤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 청취, 공동체 사업에 성공한 경험 등을 중심으로 관찰변수를 설정한다.

3) ESG, 장소애착, 주민효능감 간 영향관계 선행연구

ESG와 장소애착, 주민효능감 간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Scannell & Gifford(2011)는 British Columbia의 324명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적인 참여가 장소애착, 지역차원 메시지, 성별(여성)에 의해 참여 여부와 참여 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Wang, Zhang & Qi(2023)은 CEO의 고향정체성(장소애착)이 기업의 ESG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2010년부터 2018년 중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EO의 고향 정체성(장소애착)은 지역기업의 ESG성과 달성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hang, Ma & Zhang(2024)은 중국의 소매 투자자의 기업 ESG 성과에 대한 인식과 투자 태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조절자 역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기업환경과 거버넌스 성과, 태도, 의도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었다.

Choi, Jeong & Park(2024)는 콜센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ESG 활동의 인식이 자기 효능감과 권한 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서비스 근로자가 외부 기대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이지훈, 김윤정(2012)은 제주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애착심이 주민효능감과 관광개발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연구한 바 있다. 지역애착심의 요인은 기능적, 감성적, 친분적 측면의 애착심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지역애착심은 집단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지민, 오인수(2013)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10개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중학생 102명과 일반가정 중학생 102명을 중심으로 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애착의 정도가 진로에 미치는 장벽인식의 영향관계와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중학생은 진로에 관해 장벽을 인식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일반가정의 중학생은 부모님과의 자유

로운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애착이 진로에 대한 장벽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미영(2020)은 경기도 안산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한 결혼이주여성 231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애착과 양육효능감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애착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지역사회애착은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임재호 외(2020)은 도시와 건축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자기효능감이 지역의 애착과 도시농업의 참여에 미치는 수준을 연구하였다. 자기효능감이 강할 경우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때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지역애착도를 더 강하게 인지하였다.

사군, 진의남, 고영춘(2023)은 길림성 위만황궁과 고구려왕릉을 방문한 관광객 516명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정체성이 장소애착성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장소에 대한 의미민지와 행동의도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모형에서 자기효능감이 지역애착성에 정(+)¹⁾의 영향으로 검증되었다.

Ⅲ. 분석모형

1. 설문조사 통계자료 특성

이 연구에서는 ESG, 장소애착, 주민효능감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관찰변수를 설정하였다. 설문조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 5일(목)에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를 방문하여 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설문에 대한 문항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본 설문조사는 2024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전문 조사원을 투입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 회수된 최종 설문지는 총 302부이며 이를 검증을 위한 통계자료를 구성하였다.

〈표 2〉는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성별은 총 302명 중 여성 응답자 47.7%이며, 남성 응답자 52.3%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대재 57.6%, 고졸 32.5%, 대학원졸 7.1%의 순이었다. 연령은 20대 18.6%, 30대 25.8%, 40대 23.8%, 50대 20.5%, 60대 이상 11.2%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사무직 42.4%, 판매 및 서비스업 16.6%, 전업주부와 자영업 10.6%, 전문직 7.0%, 단순노무직 3.3%, 기능직 3.2%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은 아파트 75.8%, 다세대주택 10.3%, 단독주택 (8.3%, 기타 4.0%, 영업용 건물 내 주택 1.3%로 조사되었다. 거주기간은 1년~4년 39.4%, 5년~9년 34.8%, 10년 이상 거주민이

19.3%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소득은 300만 원 미만 응답자 19.9%, 300~399만 원 17.5%, 400~499만 원 31.1%, 500~999만 원 28.1%, 1,000만 원 이상은 3.3%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 중 경제활동인구는 20대~50대가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 이상이 64.6%로 높은 비율이었다. 아파트 거주인구, 사무직 종사자, 거주기간 1년~10년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결과를 볼 때, 기후변화와 관련 ESG 관련 질문에 대한 인식과 혁신도시에 대한 애착, 집단적인 효능감을 잘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설문응답자가 조사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2〉 설문응답자 기술통계

구분	항목	응답 (명)	비율 (%)	구분	항목	응답 (명)	비율 (%)		
성별	남성	158	52.3	거주 유형	단독주택	25	8.2		
	여성	144	47.7		아파트	229	75.8		
	합계	302	100.0		연립주택	1	0.3		
연령	20대	56	18.6		다세대주택	31	10.3		
	30대	78	25.8		영업용 건물 내 주택	4	1.3		
	40대	72	23.8		기타	12	4.0		
	50대	62	20.5		합계	302	100.0		
	60대~90대	34	11.2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60	19.9	
	합계	302	100.0			300~399만원	53	17.5	
직업	무직	2	0.7			400~499만원	94	31.1	
	전업주부	32	10.6	500~999만원		85	28.1		
	단순노무직	10	3.3	1,000만원 이상		10	3.3		
	생산직	3	1.0	합계		302	100.0		
	판매서비스직	50	16.6	최종 학력		독학, 미취학	-	-	
	자영업	32	10.6			국졸/중재	-	-	
	사무직	128	42.4			중졸/중재	9	3.1	
	전문직	21	7.0			고졸/고재	98	32.5	
	기능직	10	3.2		대졸/대재	174	57.6		
	행정관리직	5	1.7		대학원졸 이상	21	7.1		
	기타	9	3.0		합계	302	100.0		
	합계	302	100.0		거주 기간	1년 이내	20	6.5	
	거주 기간	1년~4년	119			39.4	1년~4년	119	39.4
		5년~9년	105			34.8	5년~9년	105	34.8
10년 이상		58	19.3	10년 이상		58	19.3		
합계		302	100.0	합계		302	100.0		

2. 설문설계와 연구가설

이 연구에서는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장소애착, 주민효능감의 설문문항을 설계하였다. 설문문항의 이론적 고찰은 다음과 같다. ESG의 평가지표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ESG 도시정책 중 환경(E)은 폐기물, 에너지, 온실가스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사회(S)는 균등한 기회, 공공시설, 사회안전 등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SG 도시정책에 관한 지배구조의 영역은 크게 제도적 구조, 주민참여, 투명성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빛가람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환경(E)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소,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는 공원·녹지 등 녹지율 증가와 친환경자동차 사용 등으로 관찰변수를 설정하였다. 사회(S)의 관찰변수로는 균등기회영역의 저소득층 지원제도 마련, 공공시설 영역에서는 공공 CCTV, 사회안전은 범죄발생 감소와 재난 및 재해 대응 노력으로 설정하였다. 지배구조(G)의 관찰변수는 영역별로 제도적 구조를 주민자치 위원회 제도로 설정하고, 주민참여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리고 투명성은 민원/행정 대응과 정보공개 투명 등으로 설문문항을 설계하였다.

〈표 3〉 관찰변수

구 분	내 용	
환경	x_1	- 빛가람혁신도시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감소하고 있습니까?
	x_2	- 빛가람혁신도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까?
	x_3	- 빛가람혁신도시는 공원·녹지 등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x_4	- 빛가람혁신도시는 친환경 자동차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까?
사회	y_1	- 빛가람혁신도시는 저소득층 지원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y_2	- 빛가람혁신도시는 범죄발생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y_3	- 빛가람혁신도시는 재난과 재해의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y_4	- 빛가람혁신도시는 공공 CCTV 등 안전시설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배구조	z_1	- 빛가람혁신도시는 주민자치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z_2	- 빛가람혁신도시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z_3	- 빛가람혁신도시는 민원 및 행정 문의에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z_4	- 빛가람혁신도시는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까?
장소애착	s_1	- 귀하는 빛가람혁신도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애착이 있습니까?
	s_2	- 귀하는 다른 지역보다 빛가람혁신도시에 계속 지내겠습니까?

구 분		내 용
	s_3	- 귀하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면, 빛가람혁신도시가 그리울 것 같습니다?
주민 효능감	w_1	- 빛가람혁신도시의 주민은 주어진 업무를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까?
	w_2	- 빛가람혁신도시의 주민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w_3	- 빛가람혁신도시의 주민은 타인의 말을 경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w_4	- 빛가람혁신도시의 주민은 지역공동체의 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자 특성		- 성별, 연령, 직업, 거주유형, 거주기간, 가구소득, 최종학력

그리고 장소애착은 전반적인 지역애착(장소애착), 다른 지역보다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장소의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그리움을 느낌(장소착근)으로 관찰변수를 설정하여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다. 주민효능감은 주어진 임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 어려움 극복의지, 타인 의견 경청, 공동체 사업의 성공경험을 관찰변수로 설정하였다. 끝으로 설문응답자의 특성을 검정하기 위한, 성별, 연령, 거주유형, 거주기간, 가구소득, 최종학력 등을 관찰변수로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다.

이 연구는 도시정부에서 ESG 정책의 효과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효과적인 기후변화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경보전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지배구조의 의사결정이 함께 개선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우선, ESG는 장소애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가설은 환경(E)이 장소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S)는 장소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배구조(G)는 장소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장소애착은 주민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 [그림 1]은 연구가설의 연구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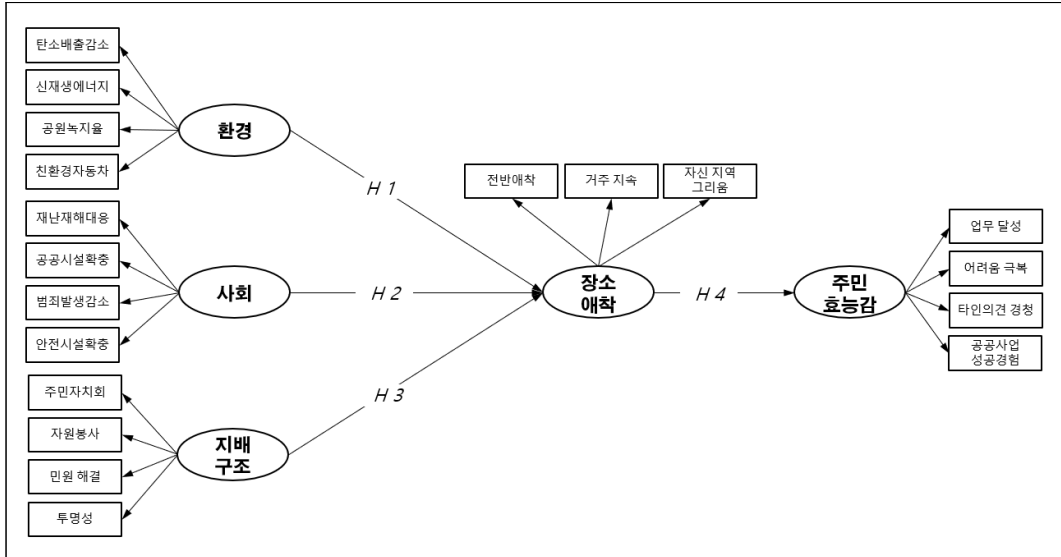
H1: 환경(E)는 장소애착에 정(+의 영향일 것이다.

H2: 사회(S)는 장소애착에 정(+의 영향일 것이다.

H3: 지배구조(G)는 장소애착에 정(+의 영향일 것이다.

H4: 장소애착은 주민효능감에 정(+의 영향일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IV. 분석결과

1.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구조방정식모형¹⁾을 실시하기 전, 이 연구의 관찰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며 이때 단일차원성이 가장 먼저 검증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단일차원성을 KMO값²⁾과 Bartlett값으로 검증한다. 검증결과, KMO값은 검정기준인 0.5 이상으로 분석되어 모든 관찰 변수의 상관관계가 개별성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Bartlett값은 잠재요인이 ‘고유치 1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신뢰성(reliability)은 Cronbach’ α 검정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Cronbach’ α 분석결과는 0.6 이상으로 분석되어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1)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하나의 잠재요인을 여러 개의 관찰변수로 설명하기 때문에, 신뢰성 분석하기에 앞서 단일차원성이 우선 검증해야 한다(이학식·임지훈, 2008).

2) KMO값이 0.5 이상일 경우,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다(김계수, 2008).

이 연구에서는 타당성(validity)을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으로 검증하였다(〈표 4〉). 검증 결과, 개념신뢰도 산출값이 모두 0.7 이상이므로 수렴타당성³⁾은 확보되었다. 판별타당성은 분산추출지수⁴⁾를 활용하여 검증하는데, 이 연구의 분산추출지수는 잠재요인의 상관계수 제곱(r^2)보다 모두 크게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Fornell & Larker, 1981).

〈표 4〉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구 분	신뢰성						타당성		
	Bartlett's test	KMO	자유도 (df)	고유값 (λ)	요인수	설명분산 비율(%)	크론바흐 α 값	개념 신뢰도	분산 추출지수
환경	$x^2=428.819$ Sig.=0.000	0.784	6	2.564	1	64.098	0.813	0.973	0.901
사회	$x^2=709.145$ Sig.=0.000	0.814	6	2.906	1	72.659	0.874	0.983	0.936
지배구조	$x^2=694.919$ Sig.=0.000	0.798	6	2.926	1	73.147	0.877	0.984	0.939
장소애착	$x^2=584.685$ Sig.=0.000	0.749	3	2.476	1	82.537	0.892	0.985	0.957
주민효능감	$x^2=829.713$ Sig.=0.000	0.831	6	3.073	1	76.833	0.898	0.986	0.947

2. 구조모형 분석결과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장소애착', '주민효능감' 잠재요인을 검증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다. 구조모형 적합도의 검증결과, x^2 값은 326.453(df=145, n=302, p=0.000이하)이며, RMSEA 값은 0.062, RMR 값은 0.047으로 산출되어 검정기준 0.080 이하를 만족시키고 있다. GFI= 0.905, NFI=0.925, IFI=0.957, RFI=0.911, TLI=0.949, CFI=0.956로 모형적합의 검정기준⁵⁾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었다. 연구가설의 C.R. 값과

- 3) 수렴타당성은 잠재요인을 설명하는 관찰변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검증방법이며, 개념신뢰도가 0.7 이상일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김계수, 2008).
- 4) 분산추출지수(AVE)는 분산추출의 평균값이며, 산출값이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학식·임지훈, 2008).
- 5) x^2 의 검증은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설문조사의 샘플크기가 크면 모형적합도가 함께 높아지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구조방정식모형의 모형적합도 기준값은 RMSEA<0.080, RMR<0.080, GFI, NFI, IFI, RFI, TLI>0.900이다(김계수, 2008).

p-value값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표 5〉 구조모형의 검증결과

구분		비표준화 요인부하값	표준화 요인부하값	표준오차	C.R.	p-value			
환경	x_1	1.000	0.742	-	-	-			
	x_2	1.042	0.756	0.080	13.003	***			
	x_3	0.961	0.709	0.079	12.200	***			
	x_4	0.844	0.681	0.072	11.716	***			
사회	y_1	1.000	0.822	-	-	-			
	y_2	0.756	0.850	0.060	12.524	***			
	y_3	1.064	0.646	0.059	18.081	***			
	y_4	1.072	0.879	0.057	18.944	***			
지배구조	z_1	1.000	0.844	-	-	-			
	z_2	0.971	0.834	0.054	18.032	***			
	z_3	0.853	0.735	0.057	15.042	***			
	z_4	0.908	0.790	0.055	16.659	***			
장소 애착	s_1	1.000	0.875	-	-	-			
	s_2	0.910	0.865	0.046	19.986	***			
	s_3	1.080	0.838	0.053	19.079	***			
주민 효능감	w_1	1.000	0.880	-	-	-			
	w_2	1.041	0.884	0.048	21.597	***			
	w_3	0.921	0.760	0.055	16.758	***			
	w_4	0.967	0.806	0.052	18.480	***			
연구가설				비표준화 경로 계수	표준화 경로 계수	표준 오차	C.R.	p값	비고
H1	환경(E) ⇒ 장소애착			0.303	0.257	0.134	2.254	0.024	채택
H2	사회(S) ⇒ 장소애착			0.185	0.169	0.113	1.963	*	채택
H3	지배구조(G) ⇒ 장소애착			0.404	0.372	0.097	4.181	***	채택
H4	장소애착 ⇒ 주민효능감			0.548	0.671	0.050	10.985	***	채택

주: 1) C.R. 검증값은 1.96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2) *** p<0.01, ** p<0.05, * p<0.1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환경(폐기물, 에너지, 대기오염), 사회(기회균등, 사회안전, 공공안전), 지배구조(제도적 구조, 주민참여, 투명성)와 관련된 관찰변수의 C.R.값이 1.960보다 높으며, p값은 0.01보다 낮게 검증되었다. 장소애착(장소애착, 장소의존, 장소착근)과 주민효능감(주어진 임무달성, 어려움 극복, 타인 경청, 공동체사업 성공경험)의 관찰변수의 C.R.값이 1.960보다 높으며, p값은 0.01보다 낮게 검증되었다.

연구가설 경로계수의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ESG는 장소애착에 정(+의 영향관계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환경(E)은 장소애착에 0.257 정(+의 영향관계로 나타났으며, 사회(S)는 장소애착에 0.169 정(+의 영향관계로 분석되었다. 지배구조(G)는 장소애착에 0.372 정(+의 영향관계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애착은 주민효능감에 0.671 정(+의 영향관계를 갖는다.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볼 때,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은 ESG 도시정책 중에서 지배구조(G)를 장소애착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잠재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회(S)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주시는 ESG 정책 마련에 있어서 지배구조(G)와 관련된 제도적 구조, 주민참여, 투명성 등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장소애착을 강화시키면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환경(E)은 빛가람혁신도시가 신도시로 계획될 당시부터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지배구조(G)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S)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사회구성원이 공공기관의 직원과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균등기회, 공공보건의복지, 사회안전 등의 분야에서 이미 만족하거나 해결한 결과로 판단된다.

끝으로 빛가람혁신도시 주민이 장소애착을 높게 인지할수록 주민효능감이 높아지므로 빛가람혁신도시의 ESG 정책은 장소애착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들과 함께 빛가람도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표 6〉 직접효과, 총효과, 간접효과의 분석결과

	가설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H1	환경(E) ⇒ 장소애착	0.257	0.000	0.257
H2	사회(S) ⇒ 장소애착	0.169	0.000	0.169
H3	지배구조(G) ⇒ 장소애착	0.372	0.000	0.372
H4	장소애착 ⇒ 주민효능감	0.671	0.000	0.671

다음은 직접효과와 총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⁶⁾. 환경(E)는 장소애착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6) 직접효과는 잠재요인과 잠재요인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며, 간접효과는 매개요인

총효과는 0.257이며, 사회(S)가 장소애착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0.169로 나타났다. 지배구조(G)가 장소애착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0.372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소애착은 주민효능감에 직접효과와 총효과 0.671이었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ESG가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에 미치고 있는 영향 관계의 연구가설을 검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계획된 빛가람혁신도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친환경적으로 계획된 신도시이며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이 이주하여 이 같은 연구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다음은 이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H1>에서 환경(E)는 장소애착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검증되어 채택되었다. <H2>에서 사회(S)는 장소애착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검증되어 채택되었지만 ESG의 3가지 요소 중 가장 낮은 경로계수로 분석되었다. 사회(S)의 경로계수가 낮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본다. 사회(S)의 설문 문항은 저소득 지원제도 마련, 범죄발생 감소노력, 재난과 재해 대응노력, 공공 안전시설 확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빛가람혁신도시의 설문응답자는 최근 개발된 신도시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며, 16개 공공기관과 관련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해당 설문문항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H3>에서 지배구조(G)는 장소애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검증되었으며 가장 큰 경로계수값으로 채택되었다. ESG의 주민인지는 장소애착에 모두 정(+) 영향관계로 검증되었다. 지배구조(G)는 장소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회(S)가 가장 낮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은 연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이다. 첫째, 환경(E)의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폐기물 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감소,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로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감소, 신재생에너지 사용 장려, 전력 소비감소에 관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분야는 탄소배출량 감소, 공원·녹지의 녹지를 증가, 친환경 자동차 사용장려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을 통해 미치는 영향의 크기이다. 이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합이 총효과이다(이학식·임지훈, 2008).

둘째, 사회(S)는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균등한 기회를 위한 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제도 마련 및 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 여성 근로자 우대를 위한 지원이 있다. 공공의 보건복지 정책은 문화 및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확충, 대형 의료기관 유치, 마을학습공간 마련과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이 있다. 끝으로 사회안전을 위한 정책은 범죄발생 감소, 재난과 재해 대응체계 구축, 공공 CCTV 등의 안전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빛가람혁신도시의 현 상황이 공공기관이 이주한 신도시이며 높은 생활수준임을 감안할 때, 위의 3가지 영역이 외에도 건강과 문화에 관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건강영역은 혁신도시 내 대형병원과 다양한 의료기관이며, 문화영역은 공공도서관, 복합문화시설 전시 및 관람회 운영, 지역축제 등에 대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배구조(G)의 정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제도적 구조에서는 환경분야와 사회분야 거버넌스 구축과 단체장의 공약 이행에 관한 정보공개,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에 관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음은 주민참여를 위해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 행정 문의에 대한 대응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투명성은 청렴도 지수 공개와 정보 공개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빛가람혁신도시에 ESG 도시행정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ESG와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이 정책과 제도가 주민들의 장소애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이때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ESG 사업에 함께 경험하여 성공해야 주민효능감이 높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다음은 이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이다. 우선, 이 연구의 대상지가 빛가람혁신도시에 한정되어 다른 모든 도시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주시를 빛가람혁신도시, 원도심, 농촌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여 검증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을 위한 분석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설문문항 중 ESG의 관찰변수가 제한적이어서 향후 ESG를 평가할 수 있는 ESG지수(index) 또는 ESG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S)의 설문문항에서 신도시에 적합한 건강영역과 문화영역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정책 판단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 이외에도 ESG도시정책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다른 잠재요인까지 확대하여 연구해야 한다. 상기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ESG가 장소애착과 주민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의 판단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이 연구에 설정한 연구모형에서 장소애착을 매개변수로 분석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적합기준에 만족하지 않고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ESG의 고차 잠재요인으로 분석한 후, 장소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광명시. (2021). 「2022 상반기 이행계획 추진실적 및 ESG 선정·운영 보고」.
- 김계수. (2008). 「Amos 7.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박정호·정태윤. (2023). 공간정보산업 ESG경영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5(1): 31-48.
- 박원우·백연정. (2006). 집단성과에 대한 집단효능감의 부작용. 「경영학연구」, 35(5): 1427-1448.
- 사군·진의남·고영춘. (2023). 문화유산 정체성, 지역애착, 자기효능감, 장소 의미 및 행동의도 간의 경로모형 탐색: 중국 길림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문사회 21」, 14(3): 631-646.
- 이도희·김주희. (2023). 소셜 빅 데이터 시대, 'ESG, CSR' 연관어 분석 고찰. 「인문사회 21」, 14(1): 415-430.
- 이세규. (2010). 지역주민의 집단효능감이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태도,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함평군을 사례지역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2): 163-184.
- 이지민·오인수. (201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 및 애착이 진로장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4(3): 193-216.
- 이지훈·김윤정. (2012). 지역애착심이 집단효능감과 관광개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6(3): 70- 81.
- 이학식·임지훈. (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서울: 법문사.
- 임재호·김유정·배진현·장선주. (2020).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도시농업 참여수준에 미치는 영향-인식조사 및 촉진방안 연구-. 「지역사회연구」, 28(4): 1-22.
- 임채선. (2022). 「도시정부 ESG 행정이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 정윤길·이규만. (2007). 변혁적 리더십과 집단효능감 및 유효성간의 관계. 「한국행정논집」, 19(1) : 1053-1073
- 채원호. (2022). 지방자치단체 ESG 경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 자치구 ESG 적용 전략 간 우선순위 분석. 「도시행정학보」, 35(4): 1-18.
- 최미영. (2020). 결혼이주영성이 결혼만족도와 지역사회애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4): 629-638.
- 최영·임하경. (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0(2): 53-64.
- 최장호. (2009). 집단효능감 지각의 결과에 대한 연구. 「생산성논집」, 23(2): 113-133.
- Altman, I., & Low, S. (1992). *Place Attachment*. New York: Pleunm.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 Choi, S., Jeong, K., & Park, S. R. (2024). ESG activity recognition enhance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ervice-orien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mong insurance call center staff. *Heliyon*, 10: 1-11.
- Gibson, C., Rande, A. & Early, C. (1996). *Understanding Group Efficacy : An Empirical Test of Multiple Assessment Methods*. Paper presented at the 11th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onference, San Diego, CA.
- Gist, M. (1987). Self-efficacy: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 472-485.
- Giuliani, V. & Feldman, R. (1993). Place attachment in a development and cultural contex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 267-274.
- Gustafson, P. (2001). Roots and rouste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ttachment and mobility. *Environment and Behavior*, 33(5): 667-686.
- Kotler, P. Haider, D. & Rein, I. (1993). *Marketing places: Attracting investment, Industry and tourism to cities, states and n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 McCool, S. F. & Martin, S. R. (1994).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22(3): 29-34.
- Riggs, M. I. & Kngiht, P. A. (1994). The impact of perceived group success-failure on motivational beliefs and attitudes: A causal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 755-766.
- Scannell, L. & Gifford, R. (2011). Personally Relveant Clime Change: The Role of Place Attachment and Local Versus Global Messge Framing in Engaement. *Enviornment and Behavior*, 45(1): 1-26.
- Shamai, S. (1991). Sense of place: An empirical measurement. *Geoforum*, 22: 347-358.
- Shumaker, S. A. & Taylor, R. B. (1983). *Toward a clarification of people - place relationships: a model of attachment to a place*. In N. Feimer & Galler, E.(Eds.), *Environmental Psychology: Directions and Perspectives*, New York: Praeger.
- Stokolos, D. & Shumaker, S. A. (1981). *People in places: A transactional view of settings*. In J.H. Harvey(Eds),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Hillsid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
- Tuan, Y. E. (1974). *Topophil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 Williams, D. R., & Roggenbuck, J. W. (1989). *Measuring place attachment: Some preliminary result, National Recreation and park*. Association Research Symposium on Leisure Research, San Antonio, TX.

- Wang, L., Zhang, Y., & Qi, C. (2023). Does the CEOs' hometown identity matter for firms'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performance?.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30: 54-63.
- Zhang, M., Ma, L. & Zhang, M. (2024). Investor Perception of ESG Performance: Examining Investment Intentions in the Chinese Stock Market with Social Self-Efficacy Moderation. *Journal of Risk and Financial Management*, 17: 1-25.

국 인 성: 동신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ESG 도시계획이 도시브랜드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대상으로, 2024)를 취득하고, 현재 ㈜영원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kis9296@naver.com).

이 세 규: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중소기업에 위한 ESG 경영평가 핸드북(2024),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K-ESG 경영해설서(2023), 동네무질서가 지역의 사회적 유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포용도시적 관점을 중심으로(2023) 등이 있다(sekyu102@daum.net).

